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 7단계

# 성경과 영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

|    |                 |    |
|----|-----------------|----|
| 01 | 영성과 하나님 나라      | 2  |
| 02 | 과학과 영성          | 9  |
| 03 | 기도와 영성          | 15 |
| 04 | 성경과 영성          | 24 |
| 05 |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 29 |
| 06 | 영성과 나           | 38 |

# 영성과 하나님 나라

시편 1:1-6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삶의 공허함으로 인한 불안감 가운데서 더 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균형이 무너짐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물량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시대이기에 삶의 거룩함을 잃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또한 삶의 모든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불안함을 경험케 하며 삶의 안정을 추구하게 합니다. 특히 피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흐름은 삶의 깊은 목적을 상실한 채 더 큰 선을 향한 희생을 거부하게 합니다. 테러나 핵무기, 자연재해, 직업이나 가정의 붕괴 같은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깊은 염세주의를 갖도록 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삶의 질서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먼저 영성은 역동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일평생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성숙케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은 성도의 삶을 일평생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

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위해선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 때 선장은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선장의 노력과 같습니다.

7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성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내면의 성숙, 영적인 성장 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영성은 나 개인에게 머물러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도피하려고 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되어야 하며 만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난 외계의 어느 장소를 말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숨 쉬는 이 땅을 부패시키며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 구원하며 새롭게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부패케 하는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함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감정을 갖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입니다.

먼저는 죄책감입니다. 이는 현실과 자신과의 차이(gap)로 인한 감정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가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지 내가 관여되어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내가 이 차이로 인해 혜택을 누린다는 죄책감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전체를 붙드는 힘입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삶의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무력감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다면 세상의 현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의 세력은 우리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정치를 다스리기에 우리의 능력 너머에 있습니다. 이웃이 당하는 불의함을 보고선 애를 써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국제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나 베트남에서는 커피를 생산합니다. 커피는 선진국에서 비싸게 팔립니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지극히 적습니다. 적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착취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무력감은 나 자신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세계관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와 판단을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이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장로 교인이 되는 것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불의하다할 지라도 깨닫거나 하겠습니까?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이나 염려로부터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종교를 지극히 개인화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내 마음에 평안을 지키려고 힘쓰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모두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모습이 병적임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성육신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행동주의(hyperactivitism)는 또 다른 도피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적인 행위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종종 교만과 신실치 못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적인 동기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나 가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죄의 뿌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불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늘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에게 투사됩니다. 이웃을 정죄하거나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도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초월하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우

리의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장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죄의 세력들을 더 담대히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요청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부터 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뭇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정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인식과 세계관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게 되고 죄의 세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해줍니다. “저

들의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에서 주님은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지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의 도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죄의 도구가 된 사람을 죄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대면하는 일은 심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죄의 세력 앞에 개방하는 일입니다. 분석하지도 말고, 기술하지도 말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우리의 무력을 깊이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가치들이 전도된 곳을 말합니다. 갖지 못한 자가 갖고, 무력한 자가 소망을 갖고, 버려진 자가 초대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승리를 말합니다. 정치적 영성이란 부분적으로는 내적인 자아를 이런 사람들의 임재와 영적 실체에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알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의 현실도 알고 불평등에 대해서도 알고, 궁핍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자

신의 사회적인 계층에 갇히어서 가난과 불평등의 희생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영적인 개방을 의미하며 그들과 함께 함을 뜻합니다. 그들을 향한 개방은 하나님을 향한 개방과 일치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영혼의 능력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등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이 죽는 장면에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아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갔으며 아들이 예사 아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십자가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흘리신 피는 실제의 피였으며 숨을 쉬기 위한 몸부림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 몸부림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은 전적인 버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군대를 모으려 하지도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올리드렸습니다. 군중들의 위선도 깨달았고,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도 깨달았고, 병사들의 변덕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조용히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경험으로 들어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 과학과 영성

골로새서 2:8-15



과학은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이성적 논리와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조에 있어서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7일간의 창조 이야기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과학의 발견과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이나 뉴턴의 물리학에 기초한 고전 물리학의 기초 논리는 이분법적 논리입니다. 한 편을 옹호하면서 다른 편을 공격하는 논리였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인간적인 지식만이 믿을 수 있는 지식이며 주관과 감정 그리고 신성에 기초한 논리는 믿을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논리는 후자에 속한 논리였습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강조하면서 과학 만능시대, 이성 만능시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더욱 심해졌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떠났거나 신앙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학 쪽에서도 과학에 대한 공격이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뉴턴을 중심으로 했던 고전 물리학을 떠나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프랭크 티플러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빛의 이중융합(duality) 이론에 따르면, 빛이 파장인 동시에 입자였습니다. 이는 뉴턴의 물리학을 뒤엎는 이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양자론은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물리학이 신학과의 경계도 허물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양자론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이 발견한 진실들은 우주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여러 법칙과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론의 아버지인 닐스 보어(N. Bohr)에 따르면, “빛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융합(duality)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묘사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 비합리, 비상식적인 것이 미시 세계에 있어서는 합리 상식이 된다.” (205)

양자론이 말하는 인간의 ‘의식’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상태의 확정’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류 고유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의 초월성은 필연적으로 초월자인 신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이 당연합니다. 또한 의식의 원천이 되는 영혼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창조주와 인류가 소통하는 통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신학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폴 데이비스(Paul Davies) 같은 과학자는 ‘과학은 이제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창조주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제공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현대 물리학의 대표적인 용어로 dual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이중 융합”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을 하는 라틴어 duo 와 셋을 말하는 tri가 어원이 되어 영어 명사화된 단어입니다. 빛이나 양자는 파동의 입장에서 보면 파동이지만 동시에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입자입니다. 또는 파동으로 취급하려면 입자로 나타나고 입자로 취급하려면 파동으로 나타나기에 duality(이중 융합)라고 부릅니다.

닐스 보어의 말처럼 빛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 융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묘사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빛 또는 양자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융합을 가지고 이기에 신비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칼케돈 회의(451년)에서 예수의 본성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인간이시다. 한분 그리스도며 아들이며 주님이시며 독생자이시다. 두 본성은 혼돈도 없고 바꿈도 없고, 나눔도 없고, 분리도 없다: 본성의 특징은 하나 됨으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본성의 특징은 보존되며 한 인격(person)을 이룬다.”

truly God and truly man... one and the same Christ, Son, Lord, only-begotten, recognized IN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the distinction of natures in no way annulled by the union,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ming together to form one person

and subsistence (hypostasis).

양자론에 따르면 관측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즉,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 차원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대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사람의 의식보다 훨씬 상위개념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제시해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99)

다음으로 우리는 상보성 원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보성 원리란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 의하면 상충 혹은 대립되는 명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원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둘이 융합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닐스 보어의 말을 빌리면 “처음 보기에 입자와 파동이라는 현상들이 너무나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양자 세계에 관한 정보를 일상적인 언어로 애매 모호함이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둘 다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301)

이렇게 보면 인간 사고의 기본 원칙인 이성적인 논리가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입자와 파동은 서로 배타적인 특성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현상에 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자 역학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과 과학의 갈등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실체를 말하면서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반면 과학은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

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닐스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된 우주는 상보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인류의 의식은 이 상보성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예와 아니요, 입자와 파동, 선과 악이 서로 배치되거나 대립되는 명제에 대한 양자택일의 자유의지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의식 및 그 속성인 자유의지를 주는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인류 자신의 책임이라는 법칙을 세워놓았습니다.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원리는 인간으로서의 관리 불가능한 창조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4차원 시공간에 존재하는 인과 원리의 구조 상, 이 죄로 인한 사망은 당연히 영혼과 육체의 융합체로서의 인간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육체의 사망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인간이 의식할 수 있지만 영혼의 사망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인류에게 원죄가 생겨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인류의 실제 생활 모습에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인류의 원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의 원죄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어떻게 원죄가 상속되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명체 일부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영양분과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뿐입니다. 나의 생명은 부모 생명의 일부분일 뿐이고 나머지 육체는 상속받은 유전자에 의해 영양분이 엔코딩된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이중 융합이나 인류의 영혼 육체 융합성에 따르면 원죄는 영혼을 통해 유전된다고 할 수도 있고 육체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이 영혼과 육체에 함께 걸쳐있는 원죄의 차원이 인간 스스로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점입니다. 마치 입자나 파동의 융합을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관측하고 선택할 뿐이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인류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 원죄의 영역은 인류가 스스로 제어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의식’ 을 통한 선택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프로그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 다시 한 번 인류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한 양자택일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임정빈 교수님이 쓴, “풀어쓴 현대 물리학과 기독교” 라는 책을 주로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 기도와 영성

마태복음 6:9-13



영적인 삶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느냐를 말합니다. 기도는 이 관계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영적 생활이 그렇듯이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그 모든 시작은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시작케 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의 관계는 강요될 수 없으며 자유와 상호 헌신의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이 관계의 건강과 활력은 교제의 진실함과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의 헌신 없이는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상호 대화(communication)와 교제(communion)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는 전통적인 태도로 넘어갑니다. 경배와 찬송, 감사, 고백, 그리고 탄원입니다.

진실한 대화는 쌍방 통행입니다.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듯이 기도

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고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음으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 자연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삶의 다양한 환경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길입니다. 최근에는 꿈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임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제로서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의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에는 의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절망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터부시 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들리는 또 다른 차원의 말함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회적 차원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간헐적인 기도나 우리의 편리에 따른 기도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기본적인 요소는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주님의 뜻과 사명을 담은 기도문이고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뜻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근

본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주신 기도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위선적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의해서도 조롱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중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당연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기도에 담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깊은 기도이면서 어려운 기도입니다. 몇 절 되지 않지만, 한 절 한 절이 어렵고 한 구절 구절이 어렵고,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어렵다는 말은 기도할수록 “주님처럼”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이웃에 관한 부분, 죄의 역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죄를 이기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음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땅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이 땅에 고통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를 아셨기에 주님은 온 힘을 다하시어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

락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습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를 버렸고, 축복과 은총을 가로챘습니다. 도리어 그것들로 이방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용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여기서 “우리” 라는 말은 결코 우연히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의 습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죄가 등장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 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우리들이 도리어 무관심하거나 도리어 반대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우리는 주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식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양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새 날을 맞으면서 굶주림으로 새 날을 맞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새 배가 고파 잠을 못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양식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는 내게 오늘 양식이 있을 때 이에 만족하도록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행여 내가 이를 분 만나를 가짐으로 나로 인하여, 형제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양식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함께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만일 환자들에게 죄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만 시킨다면, 모든 정신병 환자의 75프로는 다음 날로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다.”

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복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죄의 역사를 깨닫고 용서함으로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입니다.

“해바라기”라는 책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이먼 비젠탈(Simon Wiesenthal)이란 분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포로수용소에 끌려간 어린 비젠탈은 자신의 어머니가 화물 열차에 강제로 떠밀려 가고, 할머니는 집 계단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87명의 친척들이 죽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젠탈은 나중에 세계적인 나치 추적자가 됩니다. 수용소에서 나올 때 함께 살아나온 사람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하루는 독일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은 자기가 어릴 적에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간호사 한 명이 자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따라갔더니 한 병사가 홀로 누워 있는 병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호사는 자기를 홀로 두고 떠났습니다.

누워있는 병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카알이요.” “당신은 유대인이므로 나는 내가 행한 일을 당신에게 말해야만 하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천주교 신자로 자랐지만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하면서 신앙은 버렸고, 히틀러에 충성하다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비젠탈은 세 번씩이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병사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말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독일군 30명 가량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 300명을 건물에 가두고, 기름을 뿌린 후에 불타게 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총으로 죽입니다. 불이 붙자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비젠탈이 더 이상 듣지를 못해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애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2층 창문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자와 여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눈을 가리고 뛰어 내리려고 하고 있었고, 여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저는 견딜수 없는 죄책감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는 평화롭게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고 죽고 싶습니다.

비젠탈은 이 때의 심정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서 창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 맑은 편 건물에 빛을 비추어 마당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찬란한 햇빛과 방 안에 깔린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 잔혹한 시대의 그림자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죽고 싶지만, 끔찍한 범죄의 기억으로 안식할 수 없는 한 사람 곁에 사형 선고를 받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불태운 그 모든 공포의 종말을 보기 위하여 절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의 결심을 했고,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젠탈은 이 일로 인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32명 중에 27명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지옥에 가도록 내 버려두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6-7)

다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영이 아니며 세상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맥에 따라 말씀드리면 이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시 죄악 된 이 기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됨을 지키며 함께 울며 함께 웃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또 다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형제의 기쁨을 시기하며 형제를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능력, 생명이 가진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영광, 모든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한 번씩 할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할 기도도 아니며 우리가 호흡과 같이 기도할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당시 종교지도자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기도가 도리어 외면당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가 되어 버린 것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 성경과 영성

디모데후서 3:15-17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 이루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가 은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보고 듣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자신을 넘어선 가리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생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비록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의 독자에게 말하는 책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the words of God)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 설교된 말씀,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말씀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뜻하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유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성경에만 국한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발견되며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며, 치유 속에서도, 교회의 선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은 비록 교회의 책이지만 말씀의 영감은 성도들에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문자적 무오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진 특별한 기원, 성격, 능력과 목적을 말합니다. 딤후 3장 16-17절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영감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영감의 목적입니다. 즉,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저자의 마음과 손에 부어짐을 말하며 읽는 자들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질 것이며 양육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information)이 아니라 변화(transformation)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길 9가지를 적은 것을 봤습니다.

- ① 먼저는 성경을 문 받침대로 쓰는 것
- ② 성경을 시험 치는 대상으로 쓰는 것
- ③ 연구 도구로 쓰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고대 사회의 풍습, 법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성경을 시간 보내기 위해 쓰는 것. 호텔에 가면 기드온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것 중에 첫 번째랍니다.
- ⑤ 설교자가 설교하기위한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 성경의 말보다는 자기 말이 더 많은 것.
- ⑥ 집안 장식으로 쓰는 것. 성경을 탁자 위에 두면, 우리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 ⑦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이해하는데 더 힘쓰고, 이해하기 보다는 읽는데 더 힘쓰고, 읽기보다는 성경을 찬양하는데 더 힘쓰고. (more praise the Bible than to read it, more read it than understand it, more understand it than conscientiously follow it.)
- ⑧ 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 ⑨ 더 심각한 것은 신학자들이 자기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노예 제도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 ⑩ 독재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는 목적과 일반적인 책을 읽는 목적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책의 목적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은 양이 아

니라 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방함으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읽는 동기가 다릅니다. 일반 독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제하고 다스리려 하지만 성경 읽기는 도리어 본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읽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책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수용적이며 기도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온 사실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대하되 저자의 마음을 함께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는 상대방 아래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 저자의 관점, 그들의 질문, 그들의 꿈, 그들이 씨름하는 문제들과 함께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을 넓게 읽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화가들, 조각가들, 음악가들, 영적 지도자들, 시인들, 소설가들, 건축가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빵 굽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그리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듣는다는 말은 타인이 들었던 것을 나도 참여해서 함께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전적으로 들으십시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성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되 논리로, 감각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직감으로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sense)에 의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Lectio Divina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훈련”의 차원에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대하는 것은 시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일 15분 정도를 가져야 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하며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장소도 중요한 훈련 요소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장소는 가장 편안할 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장소에 영향을 받기에 여러 번의 시도를 거치면서 가장 묵상하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 익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경을 대하면서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깨달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기록한 내용들은 훗날에도 소중한 영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1-2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로 교인들이 성령에 약합니까?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장로교인을 조롱하는 말도 아니고 다른 교파를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한 장로교인들은 과학의 논리를 배웠고 그것이 맞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에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온통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입니다. 기도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조롱 받습니다. “성령에는 도대체 논리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로마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말합니다.

그리고선 곧 바로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방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2장1절부터는 유대인들을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3:1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변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선택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답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찌니라.” 1장 20절입니다.

도리어 바울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

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1장 21절) “왜 모른다 하느냐? 알지 않느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 않느냐?” 바울의 반박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자랑하고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행치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진단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나의 삶이, 풍랑에 파산한 배같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요? 이 또한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행하기를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하고 몸부림치는 선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왜 원하는데, 왜 아는 데, 왜 몸부림치는데, 행치 못합니까? 바울에게 지식이 없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신앙 생활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

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나” 라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셋째 차원은 공허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차원은 거룩함의 차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차원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몸이 있고, 내 정신이 있고, 내 영혼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다음으로 나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하고,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교인들이 있어야 하고, 이 환경들이 나를 만듭니다. 나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집....

사람에게는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죄의 차원이라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공허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허무함, 염려함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다 원치 않고, 다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도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아무리 환경이 좋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잘되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할 지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환경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A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분은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다가 풀려난 분입니다. 정신과 의사요 신학자입니다.

이 분이 수용소 안에서 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살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는다면, 온갖 전염병이 있는 그 곳에서는 며칠도 살지를 못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학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철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수염은 깎아야 합니다. 병을 깨서라도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터부룩하면 병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 말은 바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간다, 그리고 식구들을 만나다라는 소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가지 못하면 그 다음 날로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죽음의 환경을 이겨나가느냐?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말입니다. 살아야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의미를 줄 때, 죽음의 환경을 이겨가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무의미라든가 허무가 다가오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향락에 치중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첫 번째 차원이 해결되고, 환경이라는 두 번째 차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삶의 무의미나 허무가 다가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도박이나 술로 자꾸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가지는 것입니다. 노인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 등등한 젊은이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도 두려워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지 모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외로움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고통입니다.

설리반이라는 심리학자는 다른 정신적 질환은 고칠 수 있는 데 외로움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늘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텔레비전이라도 켜놔야 합니다. 이 모두가 죄가 가져다준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죽음의 두려움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없어졌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두려움도 가장 먼저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은 남아 있고, 외로움의 두려움도 남아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든, 재력으로든, 기술로든, 그 어떤 방법들로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부인이 암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이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인데,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세상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차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함의 차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거룩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그러나 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잠시 도달했다가도 또 뒤로 물러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공허의 차원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역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익히 알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위해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행치 못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르짖은 절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다 나타납니다

## 28절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 37-39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 끊을 수 없으리라.

7장에서 죽음과 절망으로 절규했던 바울이 갑자기 180도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추호도 죽음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가슴 터지는 감격과 환호와 영광만이 넘쳐납니다.

왜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의 삶을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낸 것입니다.

8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성령”이라는 말이 봇물 퍼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8장에서만 무려 19번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역사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도 죄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영성과 나

빌립보서 4:4-7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외적인 세상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세상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5-46) 여기서 진주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죄악성을 강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입니다. 때로 주님은 인간으로 인해 실망하셨지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선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밖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함과 우리의 개별적 인격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존재를 초월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주님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은 모든 족속을 향한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이는 인간 안에 archetypal 구조가 있으며 온전함을 향한 보편적 욕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 안에 표현된 생명의 창조성이기에 각 사람 안에 있는 고유한 표현을 발견하며 이 창조성은 고유성(uniqueness)을 열망합니다. 이 고유함 아래에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진 재물은 내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부터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힘, 외적인 이미지, 의로움 등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로 동일시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우리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치유 사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신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로 여기셨으며, 극복해야 할 악의 조건으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병자의 믿음에 기초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갑니다.

병과 귀신들림은 사탄의 왕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왕국 또한 인간 속에 드러난 영적인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갈등을 겪거나 희생이 될 때, 쉽게 악의 먹잇감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내적 세계의 실체를 인정하는 자이며 그 요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

을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나 국가 또는 정당과 같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갈등을 살펴보면 개별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이 집단적인 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개별성을 중오하거나 두려워하고 자유와 의식의 요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룹과의 일치성을 거부합니다. 이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길은 좁고 힘들며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룹의 길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병적인 왜곡이 아니라 거룩한 염려(divine anxiety)입니다. 삶에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 자체가 덕목은 아닙니다. 특히 자기 비하(self-pity)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적 목적을 완전히 쳐부수니다.

이제 제자화의 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능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개인적인 길로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집단 심리로부터 분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룹과 일치시키려는 본능은 무의식에 머무르는 주된 원천이며,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사업과 함께 존재하도록 합니다. 그룹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환상의 평화(illusory peace)를 파괴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로 왔다”**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를 말합니다.

(마 10:34) 검은 나누고 분리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는 검이며 우리를 그룹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개인화 과정은 가정과의 일치도 분리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위해선, 부모도, 배우자도, 아이들과의 일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더 높은 충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룹으로부터의 분리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참된 관계를 갖는 것이며 이 관계는 서로를 참된 인격으로 대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우선한다는 뜻이며 다른 충성들은 이를 위해 모두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외로움을 동반하거나 삶의 질서가 흩어지는 고통도 동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힘과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면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를 따를 때 우리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내적 세계를 발견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의 영적 유산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한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며, 사람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열망하시며, 개개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고유하게 창조적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내적인 명상을 통해 신과 합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었고, 개인의 성취를 추구했고, 개인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각 개인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선택과 궁극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칼이며 불입니다. 동시에 그 길은 성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입니다.

(막 1: 15)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metanoia)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외적이 가면을 벗는 것이며, 가면 뒤에 있는 참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원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적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으로서 우리의 외적인 면과 충돌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생각들이며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감정들이나 욕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킬 박사의 모습과 하이드씨의 모습을 함께 갖습니다.

내적인 원수와 외적인 가면의 관계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면과 일치시킬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내적 원수의 형태로 반대의 관점을 세웁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길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의식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적인 원수를 거부했다가 어느 날 직면하게 되면 존재가 무너지는 경

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직면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는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나타나며 우리 안에 있는 적대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심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투사(projection)는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에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순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러한 투사는 집단적으로나, 종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며 이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독일의 나찌가 대표적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최고의 종족으로 일치 시키면서 자신 속에 있는 열등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속에 숨겨진 열등한 면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진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원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적 원수의 권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적 세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적 원수가 악입니까? 아닙니다. 원수가 악이 아니라 원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을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두 타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철저하게 책임 있는 자아의 모습이며 둘째 아들은 쾌락을 즐기려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야기의 강조점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아들은 우리 속에 있는 두 인격들입니다. 이 두 인격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될 때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화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내적인 원수를 타당한 일부로 용납하는 것은 이 원수가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용납은 내적 원수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한 일어날 수 없습니

다. 투사의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윤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거나 물건을 살 때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judgment)은 평가와 달리 최종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상대방의 개인성(individuality)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지만 비판은 우리의 무의식에 따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가장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결코 도덕적인 높은 차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원수를 미워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를 미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 Memo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_ 고린도전서 1:30



# Memo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_ 고린도전서 1:18



# 12단계 개관

---

- 1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단계 성경의 기본 I
- 3단계 성경의 기본 II
- 4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단계 성경과 영성
- 8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단계 성경과 사회 I
- 11단계 성경과 사회 II
-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